주 일 낮 예 배

오후 5시 —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거룩하신 하나님(Give Thanks)	다 같 이
조용한기도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53	다 같 이
기 도	Prayer	맡 은 이
성 경	요한복음 8:31-36	인 도 자
설 교	자유케 하는 복음	이진우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찬양과봉헌	Hymn 355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 주 기도 :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시 30분**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회사역	**이 진 우 목사 Rev. Jin W. Lee**
양육사역	
찬양사역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만약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우리 자신이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6년 8월 6일 제1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사람은 그가 추구하는 수준만큼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욕구만 채워지면 됩니다.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욕구만 추구하면 됩니다.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은 양심의 자유만 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자유만으로 행복해 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유가 요구되어지는데 그것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신령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바로 죄에서 해방되었을 때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했어요.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불행과 부자유의 뿌리가 죄입니다.

죄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가슴에서 평화를 빼앗아가고 불안하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불안해집니다. 죄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사람을 보아도 두렵습니다. 병이 들어도 두렵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렵습니다. 자꾸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가 주는 속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도 이기지 못합니다. 힘으로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리고 했습니다. 그때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였습니다. 율법을 마음대로 범하는 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전케 하심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사소한 율법의 규정에 얽매이는 것보다 중요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제자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자유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성도가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요 원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적인 자유는 쟁취해서 얻지만 영적인 자유는 쟁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고후 3:17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영이라는 말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거하게 되시면 거기에 자유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자유입니다. 핍박이 와도 묶이지 않습니다. 가난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낙심해도 낙심에 묶이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두려움과 공포와 실패를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결박하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 북군에 속하였던 많은 목사님들이 링컨을 찾아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들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군이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자유교회의 편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설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감격스러운 자유교회 첫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2. 첫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로 바르고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예배처소가 결정될 때까지 자유교회 예배와 모임은 현재의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 다음 주일부터는 오전 11시에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이 주보를 보시고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중보기도

- 자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좋은 예배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 수해로 고통당하는 조국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